

파견기간	2019.02.15.~ 2019.06.25	<b>교 환 학 생 귀국 보고서</b>	소 속	기계항공공학부
파견국가	중국		성 명	탁재학
파견대학	북경대학교		작성일	2019.08.28

## I. 개요

###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동기

- 2018년 하계계절학기 GLP를 통해 북경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규학기 GLP를 신청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 2. 중국어 실력

- 저는 HSK 4급만 취득하고, 교내 강의로는 초급 중국어 1만 수강한 상태여서 회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기 전, 4주간 교내 언어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중국어 회화 수업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을 가서 말을 내뱉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지내서 현재는 중국인 친구들과 큰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 북경대학교는 여느 수도의 이름을 가진 중국의 최고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북경은 학업뿐만 아니라 수도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과 생활 면에서도 북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4. 유용한 웹사이트

-<http://dean.pku.edu.cn/englishcourses/index.html>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elective.pku.edu.cn/>

수강신청사이트입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로 기억합니다.

-<http://studyatpku.com/>

교환학생 신청, 기숙사 신청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기숙사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수강 신청처럼 대기하다가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pku.edu.cn/campuslife/xl/index.htm>

북경대학교 학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course.pku.edu.cn](http://course.pku.edu.cn)

서울대학교의 ETL과 비슷한 사이트입니다. 수업자료들이 업로드 됩니다.

-[its.pku.edu.cn](http://its.pku.edu.cn)

교내 와이파이를 접속하기 위한 등록사이트입니다. 한달에 10元입니다.

\*위는 함께 간 이종호 선배의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 II. 출국 전 준비 사항

### 1. 비자 신청 절차

- 대외협력실로 북경대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여행사 또는 직접 중국비자센터(남산)를 찾아가서 신청하면 약 일주일 정도 걸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치가 비슷하여 비자 신청과 후술할 중국은행 유학생 카드를 함께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중국 은행카드 발급

- 중국을 가기 전 중국은행 유학생 카드를 중국은행 서울지점에서 발급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중국에서 ATM을 사용하면 중국 은행 카드로는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발급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카카오페이처럼 현금이나 카드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위챗이나 쓰푸바오를 통해 결제를 하게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를 받는 곳도 존재하고, 또 그만큼 편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행 유학생 카드는 중국 내에서 발급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국을 도착하자마자 휴대폰 유심 발급과 함께 중국의 은행을 가서 카드를 발급하여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교내 중국공상은행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3.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 중국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면 (中語)한국인 중고거래 단톡방도 있고, 한국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단톡방이 존재합니다. 입주 초창기에 주변 한국인분들을 찾아서 정보를 공유하면 더욱 풍요로운 북경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숙사에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물을 주문해서 마셔야 합니다. 방 앞까지 물을 배달해주는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직접 무겁게 들고 오지 마시고, 물 배송 단톡방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III. 학업

### 1.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수강신청 기간을 착각하여 2일차에 수강신청을 했는데도 인원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공과대학에서 열린 과목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영어 강의만 들어야 한다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수강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2. 수강과목 설명

- Circuits and Electronics (电路基础) 전기회로에 관한 수업입니다. 전기정보공학개론 수업을 수강하고 회로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가서 도움이 되었지만, 후로 갈수록 생소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주일에 한 번씩 실험이 있는데, 영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교가 영어를 하지 못해서 중국어로 진행을 하여 실험 수업을 알아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 Specialized English o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材料科学[材料]英语[英语]) [ ] [ ] 재료공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영어로 배우고, 교수님께서 선정하신 논문을 같이 읽고 해석하는 수업입니다. 중간, 기말 두 번의 시험으로 성적이 평가됩니다.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지만,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언급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시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V. 생활

##### 1. 가져가야 할 물품

- 오도구에 한국 음식점, 한인 마트가 있고 타오바오에서 많은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어로 된 중국어 책, 샤워 필터기, 마스크, 상비약은 미리 준비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현지 물가 수준

-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특히 대중교통과 학교 식당의 음식들이 싸입니다. 학생 식당은 학생증에 돈을 충전해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외부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확실히 싼 가격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타오바오를 이용해 쇼핑을 많이 하는데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다양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학교가 크다 보니, 학교 안에 식당이 많습니다. 식당마다 특색이 있으니 직접 돌아다니면서 중국 음식을 먹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기숙사에서 한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 학교 안에 큰 호수(未名湖)가 있는데 풍경이 아름다워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 헬스장, 수영장 등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되어있고, 선택지가 많으니 요금을 비교해보고 시설과 거리를 고려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 중국에 처음 간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Wechat 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핸드폰 QR 코드를 이용해서 결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처음 할 일은 핸드폰을 개통하고,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은 후에 Wechat 과 연동시키는 일입니다.
- 학교가 크고 학교에서 오도구까지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로 전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저도 전동차(자토)를 이용하였고, 공유 자전거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 북경대 뿐만 아니라 북경 유학생들 간의 동아리도 있습니다. 저는 북경대 소속의 아코디언 동아리를 들어가서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 유학생들로

- 구성되어있는 힙합 동아리도 들어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 중국은 정말 넓어서 밤 기차를 타고 가서 여행일정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천진, 내몽고, 백두산을 여행했는데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은 저의 유튜브 주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Kv2UrHU6zLS\\_njHjvN2nPO?view\\_as=subscriber](https://www.youtube.com/channel/UCKv2UrHU6zLS_njHjvN2nPO?view_as=subscriber)

#### 5.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 중국어 회화를 늘리기 위해서 중국인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사귀었습니다. 룸메이트와도 많은 교류를 하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중국어를 배으면서 조금은 늘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꼭 중국인과의 교류가 주가 될 수 있는 유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교환학생을 했던 친구들과 중국어 스터디를 아침마다 했었습니다. 이 때 전화중국어 신청하여 진행하고, 친구들과 공유를 한 후 나중에 중국인 친구들을 만날 때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전화중국어는 제일 저렴한 ‘판판차이니즈’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 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북경 도착 후, 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만나 친해지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중국인 친구들을 처음 사귀었습니다. 6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첫 만남에서 그 친구들로부터 중국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사라진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중국인 친구들과도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양 나라 대학생들의 현실을 여과 없이 들었습니다. 그 중 북경대 학생들의 피나는 노력이 가장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과 미명호(북경대 상징 호수) 산책 후 일과 시작, 23~27 학점 이수, 한국에 비해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긴 학습 시간, 당연하지 않은 음주 문화 등은 편하게 공부해 온 저를 스스로 비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학교에 대한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또한 처음 접해 본 힙합 동아리에서 중국인 친구들을 초대해 공연부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이 아니라 책가방을 멘 유학생이 된 경험은 필름에 선명하게 남아 미래의 나를 이끌어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어 주신 동문 선배님들, 교직원 선생님들, 친구들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